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신사고개역' 신설 총력

區 "창릉신도시 개발엔 혼잡 심화... 교통대란 최소화"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은평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사고개역 신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는 교통 혼잡 심화와 특정 역사의 수요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사고개역 신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구에 따르면 고양은평선은

새철역에서 고양시장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2024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기본계획에는 경기도 구간 정거장만 반영됐을 뿐, 은평구 생활권인 신사고개역은 제외돼 행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은평구 신사동 일대는 2017년 말 봉선터널 개통 이후 경기도 방면에서 유입·유출되는 차량이 급

증하며 불상을 앓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 자료에 따르면 평일 출근 시간대 신사지하차도에서 신사사거리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2월 31.8km/h에서 2026년 2월 24.7km/h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창릉신도시 개발에 따른 추가 교통 수요

유입과 철도 이용 수요 증가가 맞물릴 경우 특정 거점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철역은 6호선에 더해 향후 고양은평선과 서부선과의 직결이 예정된 핵심 환승 거점이다. 고양은평선, 서부선, 6호선 이용객이 신사동구에 일대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새철역 한 곳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병목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한 혼잡을 넘어 역사내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신사고개역이 신설될 경우 신사동 일대 승차 수요를 사전에 분산해 새철역 집중을 완화하고, 두 역 간 기능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구 관계자는 "신사고개역 신설은 단순히 정거장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광역철도 노선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 서북권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올해 1억 투입 노후 간판 개선비 지원

부천시, 오늘부터 신청 접수

경기 부천시는 23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노후간판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시민참여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1억이며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총비용의 10% 이상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로 인해 추락 및 화재 위험이 있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차 정량평가인 서류심사와 2차 정성평가인 디자인 우수성

심사를 거쳐 고득점 업소 40곳을 선정할 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 간판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와 간판개선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업체 소재지 3개 구청(원미·소사·오정) 도시미관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교체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이번 간판개선 사업이 고득점과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윤찬식 기자 mcs@siminibo.co.kr

구로구, 불법노점·적치물 정비

보행자 안전 강화·불편 해소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최근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특별정비를 실시했다.

구는 불법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민원이 잦고 노점이 밀집한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노점과 적치물 정비를 내렸다.

특히 개봉로(개봉중앙골목시장 주변), 경인로(오류시장 일대), 남부순환로(개봉역 일대) 등 유동인구가 많고 보도 폭이 좁아 보행 불편이 큰 지역은 중점 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지난 9일에는 개봉중앙골목시장 인근인 정왕지원센터 주변에서 불법노점 정비를 진행했다. 이곳은 생활용품과 중고품 등이 장기간 적치돼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민원이 이어지던 곳이다.

구는 여러 차례 협의와 설득, 경고 과정을 거쳐 노점 운영자의 동의를 얻은 뒤 약 2시간 동안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구청 직원 4명과 용역 인력 7명 등 총 11명이 투입했으며, 도끼류 1트럭과 대형폐기물 2트럭, 생활폐기물 2트럭 등 총 5트럭 분량의 적치물을 수거했다.

정비 후에는 해당 공간에 화분을 배치해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구는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선 준수를 계도하고, 신규노점과 차량형 노점은 즉시 정비해 추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상가 앞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지적 정비를 유도한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로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상인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협약식에서 백경현 시장(오른쪽)이 제해중 삼육대학교 총장(왼쪽)과 함께 위촉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도로망등 교통 기반 확충·개선도

구리시, 삼육大와 업무협약

경기 구리시가 최근 삼육대학교와 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과 학생·교직원 등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과 함께 갈매역과 삼육대학교 간 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삼육대학교는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협력 ▲삼육대·갈매역 간 셔틀(마을버스) 운영 등 교통 연계 강화 ▲도보망 등 교통 기반 확충과 개선 등 다양한 연계 교통 분

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갈매역역 약 6만명의 주민과 향후 개발 예정인 태릉 공공주택지구(8900가구 예정) 입주주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삼육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약 7000명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육대학교를 포함한 갈매역권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지역 개발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해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최명준 기자 ckd@siminibo.co.kr

아산시, 내달부터 시내버스 3개 노선 신설... 천안시 버스 운행 중단 대응

충남 아산시가 천안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 운행 중지에 대응해 오는 4월1일부터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아산 지역을 경유하던 시내버스 830번, 840번, 850번,

860번 노선에 대해 운영 효율성 제고와 권역내 노선 강화해 이유로 4월1일부터 운영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아산시는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노선 신설

을 추진, 당정면과 용평면 일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마련했다.

신설 노선은 830번, 840번, 860번 등 3개 노선으로, 당정면 매곡리·동산리·호산리와 용평면 산

동리와 비롯해 천안시 백석동, 불당동 등 주요 거점을 경유한다.

아산시는 이번 노선 신설로 천안시 노선 운행 중지에 따른 교통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bo.co.kr

공영주차장 13곳에 '무장벽 무인정산기'

용산구, 장애인·노인 불편 해소

음성 안내·음량 조절 기능 탑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내 공영주차장 13곳에 무장벽(Barrier-Free) 무인정산기를 새로 도입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시설 개선은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 제1·제5 공영주차장과 한남동·서계동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총 13곳으로, 사전정산기와 출구정산기를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인호 기자 mmh@siminibo.co.kr

강북구, 23~27일 봄맞이 대청소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봄을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 봄맞이 대청소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청소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일간으로,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거주내 쌓인 미생먼지와 각종 쓰레기를 정비할 예정이다.

구는 공공청사와 주요 공공시설물, 도시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문인호 기자 mmh@siminibo.co.kr

당성 선착장 일대 환경 정화

인천 웅진군 영평면

인천 웅진군 영평면은 최근 당성 선착장 일대에서 웅진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지역내 유관기관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업데이(Clean-Up Day)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자들은 선착장 주변과 여객선 집안시설, 부두 일대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페이퍼, 해상 부유물 등 다양한 해안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으며, 총 약 2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수거했다.

인천=윤찬식 기자 mcs@siminibo.co.kr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Waterworks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정을 탐비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했습니다.
•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인천하늘수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